

엘 시스템아, 베네수엘라 경제학자의 조직경영론

국가의 이미지마저 바꾼 조직 경영론



이태원 계장

한국발명진흥회 운영지원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졸업
논문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고찰



그림1. 쓰나미가 휩쓸고 간 폐허가 된 자리에 망연히 울고 있는 일본 소녀의 모습

자연으로부터 오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지금 우리는 기업의 운용이나 경영전략의 미진으로 인해 빚어지는 경제적인 위기를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혹시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닢 빛을 엄히 하며 속으로는 미소를 짓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과 자연재해가 동서에서 동시에 터지면서 세계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과연 마음 편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일본 동북부 지역이 쓰나미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여파는 단지 일본 일부에 그치고 있지 않다. 아직 그 체감도가 사회 전반적으로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먼저 여행업계의 소식에서 그 충격을 느껴볼 수 있었다. 3월 11일 일본의 나라타 공항 폐쇄 소식이 전해지자, 예약 취소가 잇달았고, 회복세와 상승세를 보이던 대표적인 모여행사의 주가는 급락했다. 최근 대항항공에서도 일본여행을 테마로 한 야심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의 계획이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도 주목하게 된다.

일본 산업계 지진 피해 상황

지역	피해 내용
미야기현	- 센다이 공항 침수 - 오나가와 원전 일부 화재, 일부 운전 정지 - 소니 6개 공장 중단 - 무라타제작용 공장 중단 - JX닛폰오일 공장 파손 - 도요타 공장 가동 정지
후쿠시마현	- 후쿠시마 1, 2, 3, 4 원전 운전 정지 및 불안정 - 닛산 자동차 등 6곳 가동 중단 - 파나소닉 공장 차질
아오모리현	- 440만 가구 전력 공급 중단 - 파이오니아 공장 피해 - 르네사스 공장 조업 정지
지바현	- JFE 홀딩스 생산 중단 - 코스모스석유 공장 화재
이바라키현	- JSR 공장 생산 중단 - 도쿄가스 가스 공급 중지 - 스미토모금속공업 용광로 일시 정지 - 다이킨공업 생산 정지
도쿄	- 하네다, 나리타 공항 일부 폐쇄 후 정상화 - 신칸센 운행 중단 - 지하철 제한 운행

자료: 디스플레이뱅크

그림2. 일본 산업계 지진피해 상황

아직 최종적인 공식 피해규모가 집계된 것 같지 않지만, 일본의 경제적 손실을 10억 엔에서 15억 엔으로 잡고 있다.¹⁾ 5억 엔이란 차이는 결코 작지 않은 것인데, 손실액을 측정하는 데에 이런 편차를 보이는 것에서부터 그 경제적 파급력이 좀처럼 가늠할 수 없다는 방증이 아닐까. 더구나 지난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로 일본의 주요기업들이 가스, 원자력에너지, 토목분야 등 소위 기간산업에 다시금 투자를 하던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설비 및 부품공장이 모여 있는 동북부지역의 피해가 일본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의 위협을 줄지 아직은 미지수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고베대지진 이후 오히려 경제회복 노력을 통해 일본경제가 성장한 바와 같이, 이번 위기 역시도 회복을 위한 노력이 경제부양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²⁾ 하지만, 1995년의 일본은 세

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반면, 지금은 중국의 위협에 한쪽 무릎을 꿇은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나 민간차원에서나 일본과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일본의 회복이 가속화되어야겠지만, 아직은 낙관론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림3. 3월 17일에 있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리비아 군사개입안 표결에 기권했다.

전쟁으로부터 오는 예측은 되나 대응키 어려운 위기

반면, 이번 리비아 사태는 자연재해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어쩌다 보니, 자연재해와 전쟁이라는 인재(人災)를 동시에 맞게 되었지만, 우선 자연재해의 영향력과 파괴력에 대해 우리는 회복을 위한 노력 외에 사전적인 대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편 자연재해와는 달리 전쟁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인간사이기는 하다. 하지만, 비록 예측을 하고 사전에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해도, 전쟁 사태의 확산에 대해서는 또한 예측이 어려워 경제적인 손실 역시 비록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한적이라고 하겠지만, 자연재해의 영향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전쟁은 인간의 일이기 그 지속성을 판가름하기 쉽지 않다.

1) 직접 피해액 고베 때의 배가 될 것. 일본 경제연구센터의 이와타 이사장은 "고베 지진의 직접 피해액은 10조 엔 정도였으나 이번은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베 때는 사회 인프라시설이 주로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지진은 지진·쓰나미의 범위가 넓었고 원전 폭발로 전력공급 애로 등이 겹쳤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3. 18일자)
2) 리처드 쿠퍼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일본 경제가 대지진 및 쓰나미 여파로 올해 2분기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지만 대재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협받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 3. 20일자)



그림4.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 현황(문화일보 3. 22일자)

특히나 중동과 서방세계 간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모습은 마치 우산 장수 아들과 쫓신 장수 아들을 가진 어머니와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중동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플랜트 등 대규모 건설사업, 자동차 산업 등은 다시금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리비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도의 숨을 쉬기에는 장기적인 중동평화의 위협이 에너지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특히 이번 전쟁 역시 과거 미국이 석유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비난에 이어, 여타의 서방국가보다 리비아에 호의를 보이던 프랑스가 앞장서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닌 원유 확보에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가 주도를 하건 중동은 석유와 종교를 이유로 서방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기도 해서, 때로는 밀월관계를 맺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서방의 맹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하는 경우, 반미 성향을 가진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한다. 이번에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서방의 리비아 공격을 '미친 제국주의' 라고 매도하면서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외교부와 러시아 외무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³⁾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애플에 디스플레이 부품을 납품하는 LG디스플레이의 경우도 히타치 화학으로부터 디스플레이 제작에 들어가는 필름인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를 납품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구조가 각국의 부품 단위에 들어가는 소부품을 또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빚어지는 경제적인 타격은 비단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 부문에서도 쌍용자동차가 2007년 이후 선보인 신차, 코란도C의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란도C의 엔진부품은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은 센다이시에 소재한 일본 테크노메탈사다. 르노자동차에 들어가는 캐나다산 워터펌프는 일부 일본기업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역시 감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국내에서 소비되는 철강재의 20%는 일본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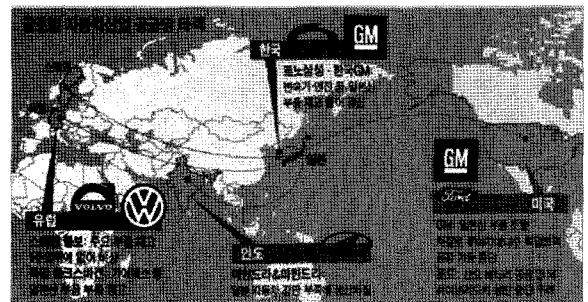


그림5. 일본 대지진이 세계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조선일보 3. 19일자)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맞물린 부품산업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전하고 있다. 앞으로 2~3개월 이후가 더 심각하다. 아직까지는 재고물량으로 버티고 있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도 물류정상화가 이루어지지

3)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유감표명 이전에 개최된 3월 17일의 안전 보장이사회에서 군사개입안 표결에 기권을 하였다.

않으면, 엔진없는 자동차, 기어박스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할 실정이다.

어찌보면, 당장에 생산차질을 빚는 산업계의 소식보다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염려해야 할지 모른다.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로 외벽의 파괴와 원자로 내의 온도상승 등으로 일본열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시 방사능의 피해 위협을 겪고 있다. 단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협만이 우리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본열도와 한반도의 거리상의 밀착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전역에 대한 방사능 위협여파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에도 불안 요소가 담겨 있다.⁴⁾ 그리고 일본보다는 중국에 대한 농수산물물의 수입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도 보인다. 방사선에 의한 해양의 오염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미래, Predict가 아닌 Making

현재와 같은 수많은 미지수와 위협 속에서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닌 미래에 대한 계획과 확고한 신념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어떠한 예측도 미래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때문이다. 현재의 기술가치판단과 재정전략을 통해 전세계가 극소한 부품들을 나누어 쓰고 있는 세계경제 구조 하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나 전쟁은 곧 생산의 중단사태로 이

어질 것이 자명해졌다. 그렇다고 자기 제품을 버리고 당장 대체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도 애플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다. 오히려 IBM이나 인텔이 애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말들이 많았다. 현재 미국 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애플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제품 자체에서 나오는 강력한 흡인력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애플이 끊임없이 Apple Computer라는 이름을 유지해 온 까닭이다. 애플은 아마도 상당히 오랫동안 Computer라는 단어를 떼어내지 않을 것 같다. 애플은 말 그대로 컴퓨터 제조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이미지는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모니터와 키보드로 구성된 단말기로 갖고 있어서 애플을 컴퓨터 회사라고 생각지 않을 수 있지만, 애플은 분명 컴퓨터 회사다. 더구나 자체적으로 CPU와 같은 컴퓨터의 핵심 부품을 만들지 않아도 분명 컴퓨터 회사다.

다소 엉뚱할지 모르지만, 애플의 성장과 명성에 빚대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직이 있다. 조직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이 아닌 재단이기 때문이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사명과 미션에 충실한 체제를 구축하고, 그 설립자 역시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 못지않은 다방면에 능력과 관심을 갖춘 다재다능한 인물이다.

기업보다 기업다운 조직, 엘 시스템아

올 3월에 한중일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가, 이번 일본 대지진 사태로 방문이 취소된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엘 시스템아의 설립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그 사람이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의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는 지원사업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그 모범사례가 바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⁵⁾이다.

비록 유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재단이지만, 기업은 물론이려니와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모든 이들이 모범사례로 삼아볼 만하다. 먼저는 이 조직이 만들어 나가는 비전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

4) "일본을 '가까운 이웃'으로 둔 한국경제 역시 일본위기의 쓰나미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대일본 수출은 전체 수출의 6%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15%에 이른다. 전기 전자, 정밀기계, 부품소재 등에서 일본의존도가 높고 한국 관광산업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4.4%에 달했다.

일본위기 외에도 세계경제의 악재가 곳곳에서 한국경제를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다. 아랍·북아프리카 사태를 비롯해 유럽 재정위기, 중국 긴축, 원자재 가격폭등 등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악재들이 단 시간에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 국가부도위험지수인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이 103을 기록하며 전일대비 2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말에 비하면 8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 75에 비하면 28포인트나 뛰어 부도위험이 27.2% 상승했다." (내일경제 3. 16일자)

5) 베네수엘라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재단(Fundación del Estado para el Sistema Nacional de las Orquestas Juveniles e Infantiles de Venezuela, FESNOJIV)이 원 명칭이다.



그림6. 영화로도 소개된 엘 시스템 청소년 오케스트라.

Play & Fight

이 재단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이나 마약과 총기에 물든 청소년들을 음악으로 구원했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음악 운동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가 앞서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애초의 생각은 순수하게 보다 젊은 음악가를 배출하여 체계적인 음악교육과 연주의 기회를 줌으로써, 탄탄한 오케스트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청소년들을 접하면서, 이 나라의 교육환경을 결코 외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수도인 카라카스는 어느 지역보다 빈민층이 많고, 심지어 청소년 시절부터 마약과 범죄에 손을 담그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런 이들에게 심어진 음악이라서 그럴까. 엘 시스템마가 모토로 하는 표어는 바로 ‘연주하라! 그리고 싸우라!(Play & Fight)’이다.

하지만 음악을 위한 환경은 더욱 좋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앞서 리비아 사태에 보인 차베스 대통령의 태도와 같이, 서방의 음악인 고전음악과 이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욱 확고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 절실했던 것이다. 이를 인식한 아브레우 박사는 음악가 이면서,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음악가로서의 아브레우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것에 조직의 핵심목표를 삼았다. 그리하여 당시에 해외파와 국내파 음악가들을 모아 음악교육을 위한 인적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핵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어느 기업이나 어느 조직 모두의 기본원칙이 아닌가.

시스템으로서의 엘 시스템마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그는 이 운동을 조직화했다. 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의 이름으로 베네수엘라에 지역단위의 오케스트라를 조직해 나갔다. 역시 해당지역에 연고를 가진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단체들과 협력했다.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아브레우 박사는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계산적이라는 말은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규모를 항상 염두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소위 비영리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영리적인 방법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아는 경제학자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베네수엘라가 리비아와 마찬가지로 산유국으로서 세계 5위의 석유수출국임을 적극 활용하여, 석유경제학을 연구테마로 했던 인물이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문화적 경제적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베네수엘라의 이미지를 변혁해 나간 혁신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활동은 음악과 경제분야에만 머물지 않았다.

자신의 영향력을 재계와 정계에도 뻗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열정은 소년과 소녀들의 손에 바이올린을 쥐어주는 데에만 있지 않았다. 숲과 나무를 모두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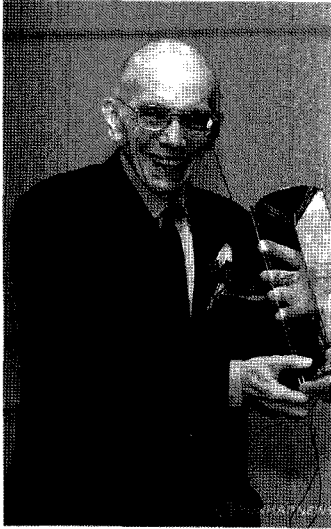


그림7. 2010년 10월에 열린 서울 평화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방한한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

업에서도 이런 양안의 인물을 찾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는 정유회사나 석유기업의 CEO가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정계에 나서는 것과는 달랐다. 그는 정객이 아니라 정치가였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엘 시스템아의 시스템화에 보탬다. 엘 시스템아는 영어로 하면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조직이다. 체계를 갖춘 조직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창립자를 닮은 교육프로그램

아브레우 박사 자신이 음악과 경제와 정치를 겸하여 활동하는 다재다능한 인사였기에, 엘 시스템아의 교육도 음악 한가지만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록 음악을 기본으로 가르치지만 음악가나 연주자를 삶의 최종적인 목표로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음악이 아닌 음악을 만들어 내는 악기를 제조하는 마이스터를 키워내는 기능전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교육은 물론, 엘 시스템아의 행정과 운영을 위한 자원으로의 성장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CEO가 해야 할 일을 고스란히 이해해 볼 수 있다. 기업이 목표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바, 정부와 정계에 대한 협력을 유도하고, 내부의 인력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특히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님을 보게 된다.

엘 시스템아 내에서 오케스트라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는 마리아 앙헬리나 셀리스 사실은 여사도 음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이벤트 회사의 기획자였던 그녀가 현재는 엘 시스템아의 국내외 공연과 교육 및 예술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다. 음악의 나라 베네수엘라를 구축하는 데에 문화 대사로서의 사명을 엘 시스템아가 갖게 한 장본인인 셈이다. 엘 시스템아는 이렇듯 자기를 돕는 자를 교육시키는 힘까지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란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비록 셀리스 여사가 이벤트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고는 하지만, 엘 시스템아에게 문화 대사로서의 역할을 만들어 낼 정도의 힘은 틀림없이 엘 시스템아의 문화와 교육이 주어 준 것이다. 아브레우 박사는 음악하는 힘의 바탕은 결국 지속적인 학습과 부단한 자기노력에 있다는 것을 엘 시스템아에도 심고 있다.



그림8.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가 된 엘 시스템아 출신의 신에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

협연하는 CEO

“규율과 재능, 음악적 탁월함은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를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든 남녀의 것임을 보여주겠다!”

아브레우 박사는 엘 시스템아의 비전을 전세계와 함께 나누고 있다. 앞서 아브레우 박사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라고는 했지만, 그것은 아브레우 박사의 목표의식과 목표

를 향한 열정이 정치 분야에서도 드러났기 때문인 것이지 그가 결코 정치적인 인물이지가 아니라 그러할 것은 아니다.

1991년 5월에 엘 시스템에 속한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일본 순회 공연을 가졌던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때의 분위기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 '일본인들이 목표에게 눈을 돌리게 하지는 못했다. 규율과 재능, 음악적 탁월함은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를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든 남녀의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목표가 단원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 아브레우 박사가 심어놓은 이 재단의 목표가 결코 내부적인 영향력만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무렵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홍보, 기획 개발 분야에서 일했던 마리아 앙헬리나 셀리스는 당시 도쿄의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재정적 후원을 맡아주었고, 일본 측이 오케스트라 운송 전문 회사와 계약을 맺어 공연 여행을 지원한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전한다.

일본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 물론, 이 오케스트라의 성격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또한 엘 시스템 재단의 정신과 문화가 끼친 영향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9. 청소년 오케스트라 답게 자유로운 복장을 한 엘 시스템 오케스트라의 연주모습

이러한 엘 시스템의 목표와 정신의 공유는 그들이 공연을 기획하는 방문국과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다. 그보다 전에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음악가, 특히 지휘자들과의 만남에서 공유의 과정을 밟고 있다. 살아있는 지휘 전설로 불리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물론이러니와, 세계적 오케스트라를 두루 경험한 주빈 메타, 주세페 시노폴리,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인 사이먼 래틀 등 거장들과의 협연도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다. 플라시도 도밍고도 엘 시스템 소속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음악가 중 하나다.

이러한 모습들 모두, 조직의 수장이 경영과 기술의 거목들과 임직원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CEO는 결코 밑으로부터의 기안과 계획을 자르고 선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과 비전을 이끌고 자극하는 사람이라는 데에서 아브레우 박사와 같은 이는 기업의 CEO가 된다고 해도 애플 못지않은 기업을 키워낼 사람이 아닐까 싶다.



그림10. 우리나라에도 결손아동들을 음악을 통해 키워내는 전통적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들이 있다.

마에스트로의 경영법을 기대하며...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 경영이 나온 것처럼, 조금만 잘 연구하면 아브레우 박사로부터 마에스트로 경영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엘 시스템을 만들어 낸 아브레우 박사의 머

리에는 다음과 같은 비전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빈민가의 어린이에게 악기를 통해 음악교육을 함으로써, 그의 가족들이 변하고, 이어 그러한 변화가 마을과 도시의 분위기를 바꿨으며, 그곳에 구성된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Cultural Symbol)이 되었다. 특히 카라카스와 같은 수도의 변화는 곧 베네수엘라의 변화로 나타났다. 이로써 베네수엘라는 음악의 기원이 왕성한 문화국가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변모의 바람이 중남미만이 아니라, 상호 적대적인 미국에서 마저 엘 시스테마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그 바람이 마치 카오스 이론에서 언급된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처럼 한반도 땅에까지 불고 있음은 우연이 아닌 실질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로는 전쟁, 그리고 좌로는 자연재해에 이은 인재의 파괴적 영향력 속에 휘둘리고 있다. 분명 이러한 전지구적인 충격과의 영향은 이 세대 혹은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철학을 변모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져오는 것이 결코 비판적인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비전과 사명이 갖춰져야 한다. 틀림없이 미래를 향한 확고한 비전은 성장과 발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옳고 바른 것에야 말로 흡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긍정적인 문화를 애플의 아이팟이 형성해 냈다. 물론 MP3플레이어라는 기술이 순조로이 발전하도록 만든 대한민국의 기술력도 한 몫 하였다. 그리고 분명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없었더라면, 전세계 단위로 전파할 수 있는 다기능의 휴대전화도 쉽게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단지 통합의 능력, 달리 말하면 문화형성력이 부족했을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음악이나 음식과 같은 문화의 요소를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재해 속에서는 희망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며 전쟁 속에서는 화합의 시발점 혹은 기폭제가 되어 줄 수 있다. 우리에게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분명 문화가 부족할 뿐이다. 이 즈음에서 회복과 화해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마에스트로 CEO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